독창적 기술 개발로 업계 선도

축적된 기술로 신제품 양산

▶ 손계동 삼아알미늄 사장

회사설립과 성장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걸쳐 고도성장과 수출증대로 기간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구매력도 크게 증가되고, 식품산업 및 제과업의 발달은 아직 처녀지나 다름없는 알루미늄박 및 그 가공산업의 육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며, 머지않아 활성화될 커다란 잠재수요로서 이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있었다.

삼아알미늄(주)은 이 무렵인 1969년에 설립, 이듬해 세계적인 알루미늄 업체인 알칸알미늄(주)의 제휴선으로 일본 최고의 알루미늄 박 제조사인 동양알미늄(주)의 합작기업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삼아알미늄(주)은 양산체제 구축, 성장기반의 확립과 생산 · 판매의 안정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1985년 5월 중견수출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 3호 압연기 증설사업에 필요한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쌓아온 성장 잠재력을 가일층 촉발시켜 1985~1986년 압연기 3호기 증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1988년 3,400여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 견실한 수출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뚜렷하게 나타냄으로써 1989년부터는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던 중 4호 압연기 증설에 따른 투자액 부담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내실경영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97년 1,000억원 돌파, 1999년 1,173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년비 약 15%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 삼아알미늄 가공공장 전경

조직 및 경영진 변동

삼아알마늄(주)은 안팎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다른게 아닌 우리의 뛰어난 기술만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여 균형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손계동(孫桂東)부사장이 1991년 사장에 취임하고 한상구 사장이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최고 경영진은 회장, 사장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 삼아알미늄(주)은 1992년에 경영진단 실시, 1995년에 ISO 9002 인증 획득, 1996년에 노무진단 실시 등 일련의 조직 활성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조직운영의 주안점을 소수정예주의, 지휘계통의 확립,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및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인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본부단위의 신설과 함께 팀 단위 위주로 개편되어 현재 서울사무소에 기획실, 관리본부, 영업본부를 비롯하여 3부, 12팀, 부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은 압연, 가공 2개 공장에 7부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삼아알미늄(주)은 YESS프로젝트 추진팀을 두어 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작업 및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YESS프로젝트는 2000년 밀레니엄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 도입, 이어 1998년 10월부

터 YESS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에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으며,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기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보다 견실한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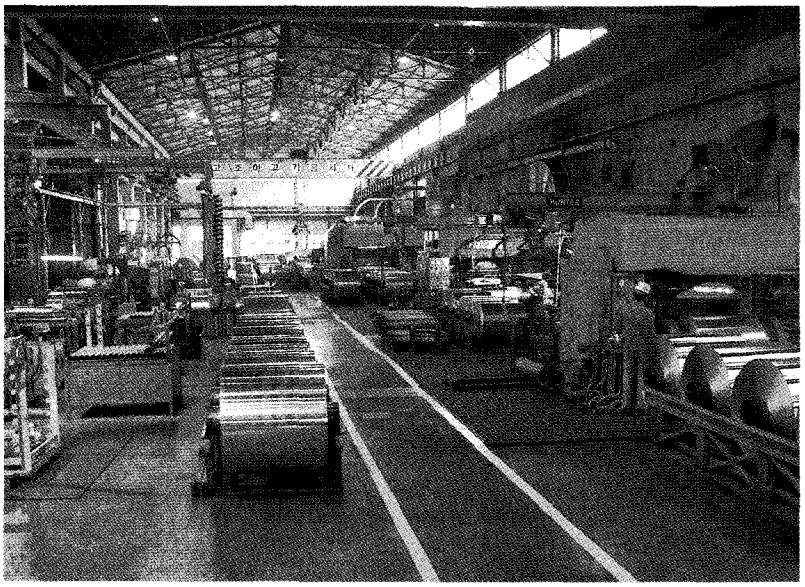
전통을 바탕으로 한 최고 제품생산

삼아알미늄(주)의 알미늄박은 포장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30여년 동안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수한 알루미늄박 제품을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세계수준의 고품질 알루미늄박과 동 가공품 및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적기 공급하고 있으며, 1977년~1978년 사이 농어촌개발공사와 레토르트 파우치를 공동으로 개발, 추진한 결과 국산화에 성공하여 1982년 내압·내열성, 인장강도, 핀홀 여부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이로써 즉석식품 시대를 이끌어갈 획기적인 포장재인 레토르트 파우치의 국산화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삼아알미늄(주)은 국내 알루미늄 관련산업의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힘쓴 결과 클래드 알루미늄 호일, 전해콘덴서용 음극박, 건축용 재료인 발포콘크리트, 1973년이래 꾸준히 개발을 모색해온 논리핑 알페이스트 등이 있다.

또한 전량 수입하고 있는 LM테이프를 1977년부터 개발, 검토하여 자체개발 가능성을 타진, 1983년 말부터 EAA수지를 직접 사출하여 제조한 LM테이프 국산화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는 한편, LS (Laminated Screen)테이프도 개발하여 생산에 들어갔으며, 여기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1980년 하반기 이후에는 누설동축케이블용인 Slot 테이프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압연공장 내부 전경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해콘덴서용 음극박과 함께 또 하나의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틸 테이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였으

▲ 삼아알미늄의 가공제품들

며 최근에는 가정용 제품인 일레븐 호일을 개발, 출시중이며 원자재 절감과 판매가를 인하시켰다.

이런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인쇄 · 접합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취기(臭氣)가 늘어남에 따라 삼아알미늄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농축 촉매연소 탈취설비를 도입 · 설치하여 95%이상 취기 발생을 제거하여 환경오염방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삼아알미늄(주)은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기술을 축적하고 완제품의 품질 향상에 직결되는 생산기술 및 공정의 개선에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압연 롤(ROLL)연마부분의 새로운 연마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 품질보증부, 압연생산부의 소속 인원들로 팀을 구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알루미늄판의 평활도 개선을 위한 후박개선팀도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끊임없는 연구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삼아알미늄(주)은 다양한 특수용도의 제품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생산기술의 보완 및 최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존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습득 위주가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 기술에 의한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다져나가 알루미늄 회사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ko

권해진 기자